

이슬람 극단세력 佛언론사 무차별 총격... 12명 사망

(샤를리 엡도)

이슬람교 수차례 부정적 묘사에 무장 괴한 침입해 난사

용의자 중 1명 자수... 전세계적 테러 규탄 성명 잇따라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무장 괴한들은 수년 전 이슬람교 풍자 만평을 실어 논란을 일으킨 잡지사 사무실에서 “알라후 아크바르”(알라하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무차별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테러 사건 후 파리 전역에 가장 높은 수준의 테러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무차별 총격에 12명 사망=현지 방송 이텔레(IfTele) 등은 이날 오전 파리 중심부에 있는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사무실에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해 총을 난사했다고 보도했다.

파리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샤를리 엡도의 스테판 샤르보니에(47) 편집장과 장카뉘(76) 등 유명 만평작가 4명 등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8명의 부상자 중 4명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이 사건이 지난 40년 동안 프랑스에서 가장 피해가 큰 테러 사건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괴한 2명이 칼라시니코프 소총과 로켓포 등을 가지고 빌딩으로 들어닥쳤으며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괴한들은 총격 도중 “알라하 위대하다”, “우리는 예언자의 복수를 갚았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용의자 추적=괴한들은 범행 후 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수색에 나서는 등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헬기와 대테러 경찰부대 등

경력 3000명을 동원해 테러용의자들이 숨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과학수사대를 투입, 랭스 아파트 1층을 조사했지만 용의자의 행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숨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사진을 배포하는 한편 수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테러사건의 용의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한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용의자의 사이드 쿠아치(34), 세리프 쿠아치(32) 형제와 하미드 무라드(19) 등 프랑스 국적자다.

이 가운데 무라드는 경찰에 자수해 수감된 상태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전 세계 테러규탄=이날 저녁 파리를 비롯해 리옹 등 프랑스 대도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추모 집회에 참가해 이번 테러를 규탄했다. 사건 직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을 겨냥한 공포스러운 테러”라고 규탄하면서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정의에 심판대에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미 행정부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무차별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초석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샤를리 엡도는 어떤 주간지=샤를리 엡도는 2011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실어



프랑스 파리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7일(현지시간) 괴한들에게 총격을 당한 잡지사 ‘샤를리 엡도’ 사무실 앞에 모여있다.

이슬람교도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무실이 다 탔으며 협박 전화도 시달렸다.

이 잡지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실곤 했으며 2012년에는 무함마드 누드를 묘사한 만평을 게재했다가 이슬람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제소되기도 했다.

테러 단체 알 카에다나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며 이 사건으로 숨진 주간지 편집장 스테판 샤르보니에를 작년 현상수배하기도 했다. 또 이 잡지사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테러 대상으로 꼽혀 왔다.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도심테러 어떻게 발생했나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알카에다 관련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30년 만에 내성 걱정 없는 새로운 항생제 ‘테익소박틴’ 개발

임상 실험 필요

1980년대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통방식을 이용한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됐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항생제가 내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최초의 항

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100여가지 항생물질이 발견됐다.

그러나 1987년 이후는 단 하나의 새로운 항생물질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기존 항생제들마저 대부분 내성이 생겨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는 항생제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 항균제 발견센터(Antimicrobial Discovery Center)와 독일, 영국 과학자들이 참가한 연구팀은 1만여종의 토양 박테리아를 실제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배양하는 전통방식으로 새로운 강력 항생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가디언, 텔레그

라프 등 영국 신문 인터넷판들이 7일 일제히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들이 방출하는 항생물질 후보 중 25가지를 추려낸 뒤 비교분석을 통해 가장 효능이 뛰어나고 내성 가능성이 없는 하나를 찾아내 테익소박틴(teixobactin)이라는 이름을 붙

였다.

테익소박틴이 실제 임상에 사용된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연구를 지휘한 노스이스턴 대학 항균제발견센터 소장 킵 루이스 박사는 말했다.

우선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2년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 개발된 모델은 주사형이기 때문에 투여가 보다 간편한 경구용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중국 잇단 성추문

여성관료 또 낙마

여성전부장, 당서기와 불륜



최근 중국에서 여성 관료들이 고위직 남성 관료들과의 성추문에 휘말려 잇따라 낙마하면서 다시 한번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장수(江蘇)성 우시(無錫)시의 첨단기술개발구 선전부장인 위민옌(余敏燕·32·사진)이 최근 기율 위반 혐의 등으로 당 내부감찰기관인 중앙기율 검사위원회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위민옌은 ‘우시 제1의 미녀 선전부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미모로 유명해진 젊은 여성 관료다.

당국은 위민옌의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중국언론은 그녀가 장수성 성도인 난징(南京)시의 양웨이쩌(楊衛澤·53) 당서기의 정부(情婦)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양웨이쩌는 올해 들어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첫 성부(省部级·장·차관급) 고위직이자 시진핑(習近平) 정부 들어 낙마한 6번째 성도급 도시 수장이다.

전도가 유망한 중국의 여성 관료가 성추문에 연루돼 신고를 차는 신세로 전락한 경우는 최근 들어서만도 벌써 세 명째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장수핑(張秀萍·50) 전 산시(山西)성 진중(晉中)시 당 부서기와 양사오보(楊曉波·44) 전 산시성 가오핑(高平)시 시장이 간통 혐의 등으로 감찰기관에 연행됐다.

장수핑은 비리혐의로 체포된 진다오밍(金道銘·62) 전 산시성 인대(人大·지방의회) 상무위 부주임과 상당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미녀시장’으로 불려온 양사오보 역시 여러 명의 상사, 부하 직원과 복잡한 애정관계를 벌여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중국당국이 당 내부규정인 ‘간통’ 혐의를 여성 관료에게 적용한 것은 장수핑과 양사오보가 처음이다. 중국법률에는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장수핑과 양사오보에 이어 위민옌의 체포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적잖은 중국의 여성 관료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얽미어져 내팽개치고 있다”며 혀를 찼다.

또 관료들의 부패사건에서 거의 성추문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황에도 개탄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신중국 사상 최대의 부패사건으로 꼽히는 저우용강(周永康·73) 전 정치국 상무위원 사건과 관련해 중국중앙(CC)TV에 근무하는 다수의 여성 아나운서와 여기자들이 정계 거물들의 정부 역할을 하며 ‘권색(權色·권력과 성)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델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이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보 1억5천만원에 월 250만 포함)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빌라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천파크 빌라 304호, 34평
 ■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이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6500만원
 ■ 즉시 입주, 내부 깨끗함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 다음 빌리지 301호, 32평
 ■ 정남향, 즉시 입주 가능
 ■ 현재 전 4500만원 임대 중
 ■ 매매가 5500만원

문의 H. 010-3605-5000

전남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전원 주택지

■ 광덕 교차로에서 3분거리
 ■ 328평, 33필지 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가 1억 3120만원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 H. 010-3605-5000